

##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2023년 3월 27일(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공동위원장 : 김승원·양부남)는 법 왜곡죄 입법 촉구를 위한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윤석열 검사독재 정부는 정치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 권력으로 법을 왜곡하여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내는 등’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채 노골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처벌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는 <헌법>에는 법관 탄핵을, <검찰청법>은 검사의 탄핵을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탄핵소추를 당한 판·검사는 지난해 단 1명에 불과하는 등 현 탄핵제도를 통해서도 판·검사의 법 왜곡을 방지할 수가 없다.

이에 재판 등 사법 작용에 있어서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판사와 검사가 국민을 위하여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은 물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용민 의원과(2020.9.10) 최기상 의원(2022.2.21.)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독일, 중국, 대만,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법 왜곡죄와 비슷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김용민 의원은 법관 기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분하고,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묵인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최기상 의원은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 행위를 해서 판결, 기소 등을 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확산시켜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원혜옥 인하대학교 부총장 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김용민 국회의원, 김성진 변호사, 손석춘 건국대학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 공동주최 :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강민정, 김남국,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 김성환, 김영배, 김용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서영교, 서영석, 신정훈, 안민석, 양경숙, 우원식, 유정주, 윤영덕, 윤준병, 이수진(동작), 이재정, 이정문, 임종성,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황운하 의원(국회의원 35명)

---

# 식순 첨부. 끝.

※ 식순(안)

구 분	소요시간(2시간)		내 용	비 고
사전 행사	10:00~10:07	7'	축사 사진촬영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참석 내빈 소개
소개	10:07~10:10	3'	행사개요 토론자 소개	- 좌장 : 원혜욱 인하대학교 교수
발제	10:10~10:40	30'	법왜곡죄 도입하자!	- 발제 :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0:40~11:30	50'	토론자 토론	- 토론1 : 김용민 국회의원 - 토론2 : 김성진 변호사 - 토론3 : 손석춘 건국대학교 교수 - 토론4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1:30~12:00	30'	자유토론	- 질의 및 응답
마무리	12:00		폐회	